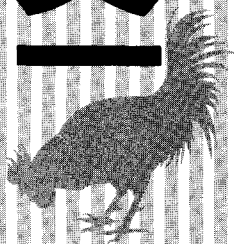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세계

2030년 계란생산 전망

이탈리아에서 세계식량기구(FAO)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Ted Gillin박사는 오는 2030년도에는 세계 계란 생산량이 9,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Gillin박사는 계란시장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30년에는 인구, 수입증가보다 소비가 계란시장의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Gillin박사는 2015년까지 국제 계란생산 증가율이 약 25%에 이르고, 2030년까지는 약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유럽,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증가율은 다른 지역의 성장율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국제경제 상황, 인구증가, 농산물 교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아시아가 계란생산의 선두를 단연 고수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계

계란 점유비율의 경우 아시아 독점체제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PI)

표1. 세계 계란생산 전망

(단위 : 백만톤)

지역	2001	2015	2030	증가율(%)
아프리카	2.08	3.21	5.13	146.6
북아메리카	7.81	8.76	10.74	37.5
남아메리카	2.92	4.13	5.82	99.3
아시아	33.92	43.37	56.62	66.9
유럽	9.65	10.64	11.22	16.3
오세아니아	0.22	0.34	0.41	86.4
세계	56.60	70.45	89.94	58.9

표2. 세계 지역별 계란생산 점유비율 변화

(단위 : %)

지역	2001	2015	2030	증가율
아프리카	3.7	4.5	5.7	+54.1
북아메리카	13.8	12.4	11.9	-3.8
남아메리카	5.2	5.9	6.5	+25.0
아시아	59.9	61.6	62.9	+5.0
유럽	17.0	15.1	12.5	-26.5
오세아니아	0.4	0.5	0.5	+25.0
세계	100.0	100.0	100.0	-

동아시아

한국 닭고기 생산 성장을 가장 클 것으로

미국의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동아시아의 닭고기 생산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닭고기 생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며, 다만

대만에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일본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닭고기 생산 성장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으며, 중국이 브라질과 같은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FAPRI)

표1. 아시아지역의 닭고기 생산전망(2002~2012년)

(단위: 천톤)

국가명	2002	2007	2012	증가율(%)
중국	5,460	6,317	7,221	+32.3
태국	1,320	1,574	1,679	+27.2
일본	1,040	1,086	1,071	+2.9
필리핀	602	708	758	+25.9
인도네시아	565	654	738	+30.6
대만	611	640	670	+9.7
한국	433	541	628	+45.0
유럽	14,509	16,110	17,565	+21.1
미국	7,040	8,020	9,180	+30.4
브라질	6,750	6,952	7,305	+8.2

태 국

NCC사 내년 2월 23~25일 대규모 가금관련 협의회 개최

태국 방콕 퀸시리킷 국제회의장에서는 내년 2월 23-25일 3일간에 걸쳐 대규모 축산관련 협의회가 개최되며, 가금분야에서는 가금관련 협의회가 같은 기간동안 열린다. 이는 태국의 국제전시회사인 NCC사가 전세계의 축산업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박람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가금분야의 경우 3일동안 태국을 비롯한 유럽 등 전 세계 전문가(육종, 경영, 위생, 영양, 안전성 등) 30명을 불러 진정한 가금발전을 논의하게 된다. NCC사의 Ladda 이사는 이번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축산 협의회는 가금, 양돈, 음식의 안전성 세분야로 나누어져 진행되며, 성공적인 협의회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앞으로 2년에 한번씩 계속해서 열릴 계획이라 밝혔다.(NCC)

멕시코

닭 유전자 지도 금년내 완성될 듯

최근 멕시코에서 개최된 인간 게놈연구회(유전자 지도연구회)에서 스웨덴 오페라 대학의 리프엔더슨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닭 유전자 지도가 연구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금년 말경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닭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 산란능력과 산육능력 등 생산성에 관계하는 유전자 작용이 밝혀짐으로써 산란계 개량과 육계개량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저항성에 관계하는 유전자 작용도 밝혀짐으로서 닭 병에 건디는 체력이 강한 닭으로 개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鷄鳴新聞)

러시아

닭고기 생산 큰폭 상승

러시아의 종계연합회의 회장인 Valdimir Fisinin에 의하면 금년 닭고기 생산은 17%이상 큰 폭으로 성장한 1.15백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러시아의 지난해 닭고기 생산량은 98만 6천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보다 7.8%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그는 닭고기 가격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5~7%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러시아는 지난 1990년 닭고기 소비량이 1인당 1년에 12kg이던 것이 소비에트연합의 분리와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큰폭 하락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6.7kg로 올라서면서 서서히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WP)